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이 문서는 '장애인차별 금지법' 관련
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
"사본 PDF" 문서입니다.

등록금심의위원회 5차 회의		일 시	2019.1.25.(금) 17:00
		장 소	본부관 311호
참석위원	최준수(위원장), 이호선, 김인준, 이준배, 고성우, 정성훈 (이상 6명)	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 예산편성 담당자: 배수현 차장(예산평가팀)		
불참위원	김태호		
의 제	2019학년도 본예산(안) 심사 및 의결		

◎ 회의내용

1. 개회선언

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지난 네 차례 회의를 통해 2019학년도 등록금을 확정하였으며, 오늘 회의는 2019학년도 본예산(안) 심사를 안건으로 하여 진행함.

2. 2019학년도 본예산(안) 심사

■ 위원장

- 오지웅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학생 측에서 추천한 정성훈 위원을 위촉하였음.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사퇴한 위원을 재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례는 아닐 것으로 사료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2019학년도 자금예산서(안)에 대해 간략히 설명함. 본예산 주요 편성 내용 및 수입,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함.
- 외부 1인실 기숙사 확충에 따른 임차보증금,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지출 사업이 적립금 순인출 요인이 됨.
- 학생 모집 결과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대학원 등록금 수입, 단기수강료의 경우, 실제 수입 규모는 예상과 다를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건물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일부를 적립하면, 나머지 금액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인지 질의함.
- 산학협력단 전입금 수입 감소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건물감가상각비 중 일부 적립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적립하는 것은 없음.
- 간접비 연구책임자 지원금이 감소함에 따라 산학협력단 전입금 수입이 줄어들었음. 이는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산학협력단회계에 기금을 마련하고자 결정한 사항임. 교비회계로 전입할 때에도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용도로 지출하였으므로 차이는 없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매년 기부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, 학교 측에서 기부금 수입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기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장학생 기부금 감소의 영향이 큼.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일부 상위권 대학에만 정부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임.
- 기업에서 후원하는 큰 금액의 기부금이 일부 대학에만 집중되고 있어 기부금 모금에 어려움이 있으나, 학교 측에서는 기부금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우리 대학은 ‘조교인건비’ 계정과목에 지출 금액이 없는데, 조교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우리 대학의 조교는 대학원생 조교를 의미하며, 모두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음. 과거에는 실습조교 직종이 있었으나, 현재는 운영하지 않으며 계약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노임 중 사회복지요원의 보수, 중식비 등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이유와 사회복지요원 규모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20~30명 규모의 사회복지요원이 있으며, 우리 대학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음. 이는 인력 절감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노임과 임시직 인건비 총액이 감소하였음.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총액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- 기타국고지원 수입이 많이 감소하였음.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CK-II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존에 근무하던 계약직원의 인건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.
- 모든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, 2019학년도에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등 종료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기타국고지원 수입액이 감소하였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내장학금의 경우 어떤 종류의 장학금에 얼마나 지출되는지 알 수 없는데, 성적 장학금을 축소하여 생활비 장학금을 증액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세부적인 장학금 종별 규모는 장학위원회와 학생지원팀 등을 통해 알 수 있음.
- 특정 장학금을 축소하여 생활비 장학금을 증액하는 것은 아니며, 학부 장학금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실험실습비 항목이 2018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가하였으나, 2018년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감소하였음. 2018년 본예산 대비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고 다른 부분의 지출도 증가하였는데, 실험실습비는 감소하였음.

- 실험실습비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전년 예산 대비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연초 예상 금액인 본예산보다 결과값에 가까운 추경예산 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, 2018년 추경 대비 2019학년도 본예산(안) 실험실습비는 증가하였음.

■ 간 사

- 실험실습비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. CK-II 사업 종료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영향으로 지출 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계정과목별 지출금액은 연간 사업용도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9학년도 본예산(안)에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지출 계획이 있는데,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것인지 질의함.
- 아울러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실험실습비 항목에 많은 금액을 배정해주 시기를 요청드림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, 보수적으로 수입 규모를 예상하여 미리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,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 대부분은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단과대학의 자율예산편성 시 본부에서 총액을 정해주는 것인지, 계정과목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질의함.
- 계정과목별로 금액이 정해지면, 차후에 단과대학에서 변경이 가능한 지 질의함.

■ 간 사

- 각 단과대학에 예산 총액을 알려주는 것이며, 단과대학에서는 총액 내에서 계정별, 학과별 집행 계획을 수립함.
- 예산 확정 후 단과대학 내에서 계정과목 간 금액의 이동은 불가능하며, 예산 총액 규모 내에서 단과대학 간 재배정은 가능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관련 비용 지출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2021년 3월에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이므로 내년까지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. 이후에는 기계기구 유지보수와 관련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보다 투명하고 충실한 예산 심사를 위해, 차세대시스템이 완성되는 2021년 이후 부터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본예산(안) 심사 시 상세한 예산 지출 계획을 공개해주 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본예산에서 모든 계정과목 마다 지출 계획을 명시하더라도 결산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음.

■ 간 사

- 결산 시에도 예산과 같은 상세한 지출 내역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본예산의 상세한 내역을 알아야 추가 자료 요청 등 불필요한 절차도 줄어 들 수 있으며, 학교의 정책 방향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음.
- 이를 통해 학교 측과 학생 측 모두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충실하 고 투명한 예산 심사라는 명분상으로도 필요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본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 제공으로 학생들의 질문 사항이 줄어드는 등 회의 운 영이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,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도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음.
- 단기 수강료를 제외한 전체 등록금 수입에서 교내장학금, 보수, 공과금 등에 지출 하는 금액을 제외하면, 등록금 수입 중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여력이 크지 않음. 학생들을 위한 지출 중 상당 부분은 비등록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우리 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편이며,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우리 대학만큼 외부사업 수주 등 등록금 수입 외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성 과를 내는 대학도 없음. 등록금 의존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, 교육

비 환원율은 중상위권에 속함.

■ 배수현 차장

- 등록금 의존율은 기금 인출 및 적립 규모를 활용하여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지표 값이며, 교육비 환원율이 실질적으로 더 의미가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대학의 전체 수입 중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므로, 예산의 상세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알권리를 말씀드리고자 한 것임.
- 학생 측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 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함.
 1. 학생지원비, 실험실습비 세부사용 내용의 공개
 2. 예산산정시스템 구체화
 3.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학생 공유 및 의견 반영
 4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시 학생참여
 5. 등록금심의위원회 전 예산실무회의 개최
 6. 불필요한 행정 소모 예산 삭감
 7. 셔틀버스 증차 및 증편을 위한 예산 확대
 8. 북악발전위원회 예산의 별도 편성

3. 2019학년도 본예산(안) 의결

- 2019학년도 본예산(안)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함.
- 2019학년도 잉여금 발생 시에는 학생경비 항목으로 지출하기로 잉여금 처리 원칙을 합의함.

4. 폐회선언

- 이상 2019학년도 본예산(안) 심사·의결을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9. 1. 25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